

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

충청남도 보령시
- 대천여자중학교



2017. 7

이*혜

솔직하고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나를 되돌아보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.

이*서

'선생님'으로 불렸던 4박 5일의 봉사였지만 오히려 멘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
뿌듯한 시간이었다.

이*진

멘티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에 매 순간 적극적으로 임해줘서 기뻐고 마지막까지 보람차게 진행할 수 있었다.

박*연

교육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,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. 마지막에는 아이들과 헤어지는게 아쉬울 정도로 아이들에게 정도 많이 들고 좋은 영향도 많이 받고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.

김*우

재능봉사를 통하여 멘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참가하였지만 오히려 멘티들이 좋은 추억을 선물해 준 것 같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참여하고 싶은 좋은 경험이었다.

김*희

4박 5일이라는 시간동안 캠프 형식으로 교육봉사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었는데, 멘티들과 가까워지기도 쉬웠고 그랬기에 헤어짐의 순간도 너무 아쉬웠다. 기회가 된다면 다음 번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다.